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14.96 (-9.52)	824.11 (+11.9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160 (-0.046)	1294.30 (+16.00)



금값 된 '金'... 2000달러 돌파 불안한 투자자 자금피난처 부상

(은스당)

SVB 사태 이어 은행권 부실 전염 4월말 금 선물 온스당 2014.90弗 작년 러-우크라 전쟁 후 최대치 국내 금시장도 사상 최고가 기록 금 현물 1g 당 가격 8만3735원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걷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시작으로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독일 도이치은행까지 금융위기가 전염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까지 금융위기를 겪자 투자자들은 피난처로 '금'을 선택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다.

한돈(3.75g) 매수가격은 35만3500원으로 지난 20일 역대 최고치(36만2000원)보다 1만원 하락했다.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설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SVB는뱅크런이 일어나자 파산했고, 이후 CS 역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인수하면서 사실상 파산했다.

지난 24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유럽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간밤에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장중 14% 나 하락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험이 커져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고,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0.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0.25%p, 유럽중앙은행(ECB)은 0.5%p 등이다.

금리인상기가 지속되면서 금값 상승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금값은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단기간 급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 이후 은행권 부실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국제 금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만큼 향후 귀금속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 전경. 1600t 콜리엇 크레인들이 선박 구조물을 나르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

야드에 꽂찬 선박 건조물량 조선업계 수주 호황 실감나

르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8년 만에 현장 모습 미디어 공개 3년치 일감 확보로 직원들 구슬땀 대표적 고부가가치 LNG선 최다 연료비 절감 자체 기술력에 자부심

승선한 선박의 너비는 46.4m고, 길이는 299m였다. 숫자만으로는 그 크기가 가늠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만수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매니저는 "63빌딩(249.6m)보다 50m 더 길다"고 덧붙혔다.

이날 승선한 LNG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2020년 하반기 수주하고 2021년 12월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었다. LNG운반선은 다른 선종보다 복잡한 설계 구조로 되어 있어 건조 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일반 컨테이너선이 건조부터 인도까지 9개월이 소요된다면, LNG선은 건조부터 인도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

이날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수많은 선박 중 LNG운반선을 공개한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선종이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건조 능력은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글로벌 LNG선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1972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건조한 LNG선만 95척에 달하고, 현재 전체 수주잔량(155척) 중 LNG선(53척) 비중은 약 34%다.

LNG운반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알려져 있으며, 엔진 부분만 따지면 현재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 엔진의 60% 이상이 LNG, LPG, 메탄올, 에탄 등 친환경 연료 엔진으로 시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약 2만2000마력의 이중연료(DF)엔진 2기가 탑재돼 있었다. 이중연료 엔진은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고 있으며, 기존 엔진 대비 이익률도 3~5%p 높다.

이 매니저는 "LNG선 이윤도 많이 남고, 친환경 선박으로 선주들이 많이 찾는다"며 "17만4000m³ 이상 LNG운반선 가격은 1척당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원)이고, 현대중공업은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양성운 기자 ysw@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현장에 들어서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글귀가 기자단을 반겨주었다. 'HD현대'가 시끄러운 용접 소리와 중장비들의 엔진 소리가 가득한 울산조선소의 모습을 미디어에 공개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방진 마스크 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모습과 공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음들, 바닷바람과 어우러진 시름한 쇠냄새까지. 몇 년간은 느껴볼 수 없었던 조선소의 활력이 현장에서 그대로 전해져 왔다.

현대중공업 야드 전체에서 건조 중인 배는 47척으로 10여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최근 2년간 올린 수주 물량만으로도 현대중공업은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2018년 입사한 한 HD현대 관계자는 "야드(현장)에 선박 건조물량이 꽂 차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감탄했다.

◆친환경 연료 선박·엔진 시장 주도하는 현대중공업

기자는 이날 바다에서 가벼운 등산을 했다. 전체 공정의 87%를 끝낸 17만 4000m³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오르는 승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14층 높이(35.5m) 선박을 오르며 선박의 웅장함을 체험했다.

제2금융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6조

비은행권 부실 확대 경고등 익스포져 사상 최대수준 증가 여전사 4.3배, 보험사 3배 ↑

지난달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상복합 분양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들이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선 금액은 440억원.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이 줄고 있어 공사비를 못 받아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

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린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일시적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은행 부동산PF 익스포져 115.5조원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모는 115조5000억원 규모로 대출이 91조2000억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확대된 이유는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7년말 부동산PF 익스포져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업권별 익스포져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여전사 432.6, 저축은행 249.8, 보험사 204.8, 증권사 167로 집계됐다. 5년전과 비교해 익스포져가 각각 4.3배, 2.5배, 3배, 1.7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말 8.2%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2%에서 2.4%, 여전사 0.5%에서 1.1%, 보험사는 0.1%에서 0.4%로 늘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일 제주 방문해 참배 예정
- ▲ 야권, 굴욕외교 규탄대회 참석... "국익, 국민이 지켜야" /사진 뉴시스

- ▲ 한동훈 총선 차출론 '술술'... 대야 투쟁 '선봉장'
- ▲ 이재명, 안중근 의사 113주기에 "선열 빛기 부끄러워"



- ▲ 홍준표, '트럼프·이재명' 싸잡아 비판... "한미가 겪는 홍역" /사진 뉴시스
- ▲ 신임 국수본부장에 우중수 경기남부청장 유력